



문서번호 : 17-센터-07-04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제 목 :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3차 집단소송 및 시네마달 손해배상 청구

전송일자 : 2017. 7. 31.(월)

전송매수 : 총 3매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3차 집단소송 및 시네마달 손해배상 청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에서 2017.7.31.(월) ‘블랙리스트 피해자 3차 집단소송’ (원고 16명)을 진행합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였고,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여, 지난 2월 9일에 문화예술인 461명을 원고로 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1차 집단소송’을, 지난 5월 22일에 2차 집단소송 (원고 총 23명)을 진행하였습니다.
4. 지난 2차 소송 제기 이후, 추가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원고들과 특검 공소장에 적시되신 분 (2분)등 모두 16분을 원고로 하여, 7월 31일(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지난 2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박근혜(전 대통령),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운선(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상률(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소영(전 청와대 문체부비서관)을 비롯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법인 등을 피고로 하여 개별적 책임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지난 1, 2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청구액은 소장 제출 시에는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하고 향후 피해유형과 정도에 따라 증액할 예정입니다.

5. 특히 이번에는 주식회사 시네마 달(대표이사 김일권)을 원고로 하는 별도의 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시네마 달은 김일권 대표가 2008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2년 법인으로 전환된 회사로, 독립 다큐멘터리 작품을 국내외로 배급하는 국내 유일의 다큐멘터리 전문배급사입니다. 시네마 달은 그동안 용산참사를 기록한 ‘두개의 문’,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을 다룬 ‘탐욕의 제국’, 한진중공업 노조 탄압을 다룬 ‘그림자들의 섬’ 등 지금까지 약 190편의 다큐멘터리 작품을 배급하였습니다. 특히 2014. 10. 시네마 달은 이상호, 안해룡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을 배급하였는데, 피고 박근혜 등은 세월호 참사를 다루고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시네마 달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상영을 방해하였으며 지원 배제 등 불이익을 가하였습니다.
6. 한편 지난 2017.7.27.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30부)는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김기춘 등에 대하여 제1심 형사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럽게도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관하여 박근혜와 조운선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판단·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지시자이자 최종책임자인 박근혜, 집행자로서의 정무수석이자 문체부장관인 조운선의 역할을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지난 7.27.자 선고는 형사재판에 관한 제1심 판단일 뿐,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 더불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형사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박근혜와 조운선은 여전히 민사책임을 저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 소송에서도 박근혜와 조운선을 피고로 포함하였습니다.
7.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 3차 소장 요약본

2017년 7월 3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